



‘깨어있는 나 행복한 세상’

적극적 참여로 ‘세계일화’ 추구

전 세계 불교도간의 교류와 협력을 꾀하는 국제 불교기구들도 ‘한국불교 세계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구의 국내 지부들은 국제대회 유치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펼침으로써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국제 불교기구들의 활동현황을 살펴보고, 이 기구들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어떤 일에 주력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전문인력 양성 등 국제적 역량 길러야

유구한 불교전통과 체계적 승단, 경제력 여건 등을 갖춘 한국불교에 세계 불교계가 거는 기대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국내 단체들의 활동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각 단체들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국제기구에 참가할 전문 인력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 불자들에게 국제기구의 필요성과 활동을 알리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 진월 스님은 “각 단체들에게만 기구 운영의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도 국제교류를 위한 조직과 예산,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수령 기자**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 WFB)

135개 지회, 친목·정보교환, 복측 참여로 南·北 교류 창구 역할 기대

세계불교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등을 위해 1950년 스리랑카에서 창립된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 이하 WFB)는 가장 널리 알려진 국제 불교기구다. 전세계 135개 지회가 참여하고 있는 WFB는 격년마다 세계대회를 개최해 전세계 불교도들의 우의를 다지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6년 창당 스님 등이 네팔에서 열린 ‘제4차 세계불교도우의회대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는 조계종 지부와 임선교 회장·김용표 교수(동국대)가 이끄는 지부가 각각 활동 중이다. 또한 지난 2002년 열린 총회에서는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 진월 스님이 WFB 본부 상임이사로, 양정은 국제교

류위원이 본부 부회장으로 선출돼 WFB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WFB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 불교계도 참여하고 있어 남북한 불교계의 교류 창구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지난 2002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22차 세계불교도우의회대회’에서는 남북한 불교계 대표들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 공동선언을 채택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02)2011-1701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WFBY)

청년불자 사회·문화 교류… ‘국제클럽 25’ 결성,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

세계불교도우의회(WFB)의 산하단체인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이하 WFBY)는 청년 불자들의 사회·문화적 교류를 목적으로 1972년 스리랑카에서 결성됐다. 국내에서는 조계종이 2002년 WFB에 가입한 후 문을 연 WFBY 한국본부(회장 선업)와 1994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대회에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불교청년회가 각각 WFBY 지부로 활동하고 있다.

WFBY 한국본부는 지난 1월 ‘제3회 세계불교청년포럼(International Buddhist Youth Forum)’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 대회에서는 12세부터 25세까지 청소년불

자들의 모임인 ‘국제클럽25’가 발족해 눈길을 끌었다.

WFBY 한국본부는 지난 3월 국제연동화관에서 클럽25 제1기 발대식을 갖고 청소년·청년 불교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선업 스님은 “WFBY 한국본부는 클럽25 활동의 일환으로 영어 불교 강화를 마련해 국제 청소년 캠프와 국제대회 등에서 통역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WFBY 한국본부(www.wfbkorea.org) (02)545-8177, 대불청지부(www.kyba.org) (02)738-3385

참여불교세계연대(International Network for Engaged Buddhists, INEB)

NGO 활동 통한 종교간 협력·회합 증진, 국제 이슈 공동실천운동 전개

참여불교세계연대(International Network for Engaged Buddhists, 이하 INEB)는 전세계 참여불교 지도자와 단체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1989년 태국의 술락 시바락사 박사와 일본 테루오 마루야마 스님이 중심이 되어 동남아시아의 불교 사회 단체와 함께 발족한 참여불교세계연대는 현재 태국에 본부를 두

고 있다. 33개국 200여 불교 단체 및 개인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2년마다 세계대회를 열어 지속적인 참여불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불교도간 또는 종교인들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INEB는 생명존중, 비폭력, 자비, 평화 등 불교적 가치를 세계 곳곳에 실현함으로써 인류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사

회 참여 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정토회(대표 법륜)와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지속적으로 참여해 국제적 이슈에 공동실천운동을 전개해 왔다. 국내불교 NGO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세계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각 국의 불교 NGO들과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상설화 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대회 개최의 큰 의의로 꼽힌다. (www.igc.org/bpl/inneb.html)

세계종교연합(United Religion Initiative, URI)

60여 종교단체 참여, 한국연합 서울총회·전국대회 준비 한창

세계종교연합(United Religion Initiative, 이하 URI)의 한국 지부인 한국종교연합(URI-Korea, 회장 진월)도 불교계에 서 주목해야 할 단체다.

‘종교인들의 UN’을 표방하는 URI는 1995년 UN창립 50주년을 기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기했다. 2000년 정식으로 발족했으며 현재 70여 개국 250여 지부가 창설됐

고, 60여개 종교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종교연합은 1999년 진월 스님을 대표로, 강남순 교수(한신대)를 사무총장으로 해 발족해 2000년 창립 지부로 정식 승인을 받았다.

한국종교연합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새천년맞이 평화캠페인’을 벌인 것을 비롯해 매주 토요일 법안정사에서 URI 워크숍을 개최하고 격월간으로 ‘종교간 대화의 문

명사적 조명’을 주제로 평화포럼을 여는 등 종교간 평화와 화합의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사단법인화를 준비 중인 한국종교연합은 내년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세계종교연합총회(URI Global Assembly)’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전세계 60여개 국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16-17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전국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www.unikorea.org (02)2264-8260

세계여성불자연합회(Sakyadhita,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Women)

세계 최대 불교 여성 단체, 차별·환경과피·인권문제 공론화 평등 구현

여성불자 위상 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세계여성불자연합회(Sakyadhita) 역시 한국지부를 두고 있다.

‘석가의 딸들’이라는 뜻의 사카디타는 1987년 인도에서 결성돼 현재 전 세계 25개 국가의 1900여 명 회원 및 후원자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불교 여성단체다. 까르마 렉시 쏘도 스님이 이끄는 사카디타는 1987년 인도 부다가야에

서 열린 제1차 세계여성불자대회를 시작으로 격년에 한번 씩 여성 불자 관련 주제의 국제 학술 대회를 열어왔다.

또한 국가와 비구 승단으로부터 소외된 여성불자들을 위해 교육시설이나 수련센터 등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환경과피나 인종주의 등에 맞선 실천운동에도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카디타 한국지회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제8차 대회를 개최해 전세계 45개국 1500여명의 출·재가자와 함께 여성 불자의 교육과 수행을 주제로 토론의 장을 펼쳤다. 특히 ‘최대 비구니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의 대회를 기점으로 비구니 승단이 없는 나라에 승단 건립을 지원하는 등 비구니 지위 향상과 수행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www.kbgiuni.org (02)3411-8103

여수령 기자

녹음테이프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 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 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 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 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별하고 능숙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써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관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주문방법 : 아래계좌로 대금 30만원을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 테이프(14개)와 교재 동협 100080-56-022361(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2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324-2468/ 326-4585

☐ 부산지부 053)384-2303 ☐ 대구지부 053)641-2334 ☐ 구미지부 054)465-2642 ☐ 경남지부 016)274-3170 ☐ 경북지부 054)553-5145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이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이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이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아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신 입장